CEO Information

2012. 9. 5. (제864호)

반복되는 국제 곡물가격 파동

- 애그플레이션, 피그플레이션, 유가상승 -

목차

Ⅰ. 기상이변과 국제 곡물가격 급등

Ⅱ. 국제 곡물가격 급등의 영향

Ⅲ. 시사점

작성 : 김화년 수석연구원(3780-8254)
hnkim@seri.org
정호성, 박환일, 채승병 수석연구원
김경훈 선임연구원

SAMSUNG 삼성경제연구소

《 요 약 》

빈번해지는 국제 곡물가격 파동

2012년 여름 엘니뇨가 발달하면서 미국, 러시아, 남미 등 주요 곡물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가뭄과 이상고온 현상 등 기상이변이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곡물 공급이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기적 자금이 곡물시장에 유입되면서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옥수수와 대두 가격은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이후 2007/08년, 2010/11년에 이어 3번째 식량위기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2012년 현재 세계경제의 흐름이 과거 식량위기 때와는 달리 경기 하강기여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향후 기상이변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곡물가격 급등의 빈도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곡물가격 급등은 사료, 육류 등 식품가격 상승을 의미하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 Agriculture + Inflation)을 유발하는 등 3가지 물가상승 경로를 통해 신흥국경제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① 신흥국: 식품소비 비중 高 → 곡물가격 급등 → 애그플레이션

신흥국은 선진국보다 식품소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민감하다. 특히, 현재는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통화가치가 하락한 상태여서 수입물가 상승 속도가 더욱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신흥국들은 애그플레이션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일부 신흥국은 재정적인 여유가 부족하고 물가상승 속도도 빨라서 식량난과 물가상승에 대한 대응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그플레이션과 식량난에 대한 충격과 대응력을 종합해보면 인도, 이집트, 이란 등 주요 신흥국이 이중고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중국: 돼지고기 물가 비중 高 → 사료가격 상승 → 피그플레이션(Pigflation)

중국은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육류 소비가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사료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사료가격이 올라가면 중국 물가의 핵심인 돼지고기 가격을 자극하여 피그플레이션(Pigflation)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물가불안은 그간 주로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서 촉발되어왔다. 피그플레이션은 2013년 초 중국의 소비자물가를 추가적으로 1.5%p 상승시킬 전망이다.

③ 중동: 높은 식량수입 의존도 →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 유가상승

MENA(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식량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집트는 세계 1위의 밀 수입국이자 5위 옥수수 수입국이며, 이란은 세계 2위 쌀 수입국이자 9위 옥수수 수입국이다. 높은 대외 식량의존도와 더불어 소비지출 중 식품의 비중도 크기 때문에 국제 곡물가격 상승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매우 크다. 2010년

여름 러시아의 곡물수출 금지조치로 인해 2011년 초 MENA 국가에서는 식량가격이 급등하여 민주화 시위의 촉매로 작용하기도 했다. 2011년 MENA 사태와 2012년 이란 사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곡물가격이 급등한다면 중동의 정정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며, 석유공급이 불안해져서 유가도 상승할 것이다.

세계경제: 신흥국과는 달리 선진국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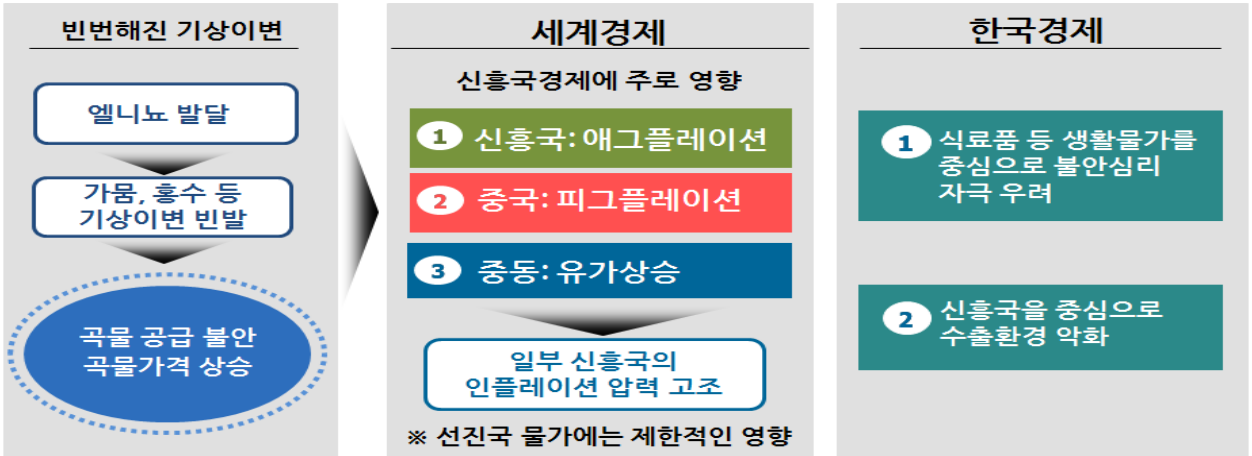
국제 곡물가격 급등은 앞에서 본 3가지 물가상승 경로를 통해 신흥국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일부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식품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애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 물가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나 수출부진 지속 우려

한국은 곡물 수입의존도가 높아서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면 부분적으로 식료품 가격 상승압력이 커질 것이다. 공산품 물가가 안정기조를 보이고 있고,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어서 전체 물가의 상승압력은 제한적일 것이나 생활물가가 상승하는 등 물가 불안심리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동안 한국경제를 지탱하던 수출이 최근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신흥국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면 수출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식량공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수급안정 등 미시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곡물가격 상승이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기업은 수출환경 악화에 대비해 시나리오 경영 등 위기대응 체계를 갖추고 전략의 우선순위를 신축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식량위기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농산업을 육성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Ⅰ. 기상이변과 국제 곡물가격 급등

2007/08년, 2010/11년에 이어 다시 돌아온 식량위기 조짐

□ 2012년 여름 엘니뇨[1]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러시아, 남미 등 주요 곡물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가뭄과 이상고온 현상 등 기상이변이 확산

- 2012년 6월부터 시작된 미국 중서부의 가뭄은 1956년 이후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현재 미국 전체 주 가운데 31개 주가 가뭄 상태

- 러시아, 우크라이나에도 가뭄과 폭염이 지속되고 남미에도 이상 고온이 발생하는 등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혼란을 겪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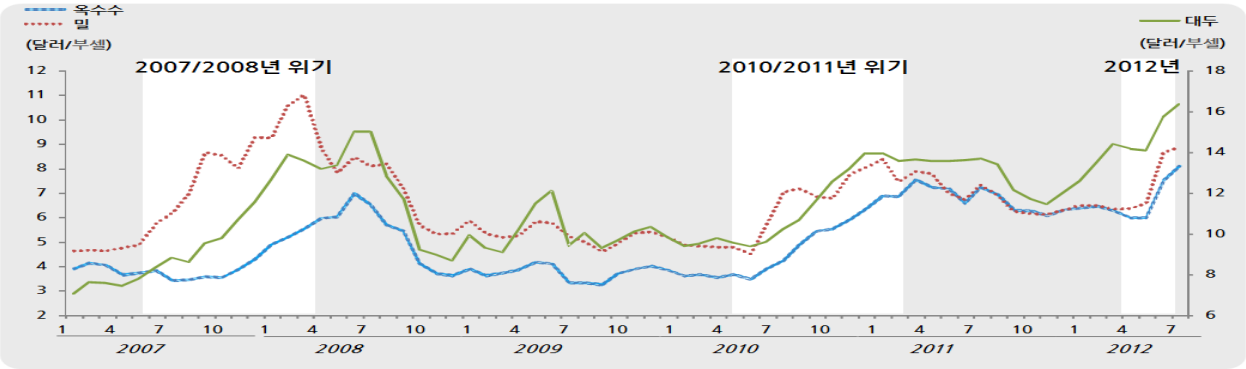
  · 가뭄뿐 아니라 중국, 필리핀, 영국 등은 폭우로 홍수 발생

□ 기상이변으로 인해 곡물 공급이 불안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으로, 2000년대 중반 들어 3번째 식량위기로 발전할 우려

- 2007/08년, 2010/11년에도 곡물 수급불안과 가격급등으로 전 세계에 식량위기가 확산

- 2010년 여름 엘니뇨로 인한 곡물 공급불안 이후 약 2년 만에 다시 발생한 식량위기 조짐으로, 과거보다 위기 주기가 짧아지는 경향

국제 곡물가격 추이



주: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월평균 가격 기준
자료: KoreaPDS

[1] 2011년 하반기~2012년 상반기의 라니냐가 끝나고 2012년 여름부터 엘니뇨로 전환됐는데, 엘니뇨는 주로 북반구에 가뭄과 홍수를 초래하고 라니냐는 주로 남반구에 가뭄과 저온 현상을 야기

□ 2012년[2]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전년 대비 2.7% 감소하여 생산이 소비보다 4,000만톤(소비의 1.7%) 부족할 전망[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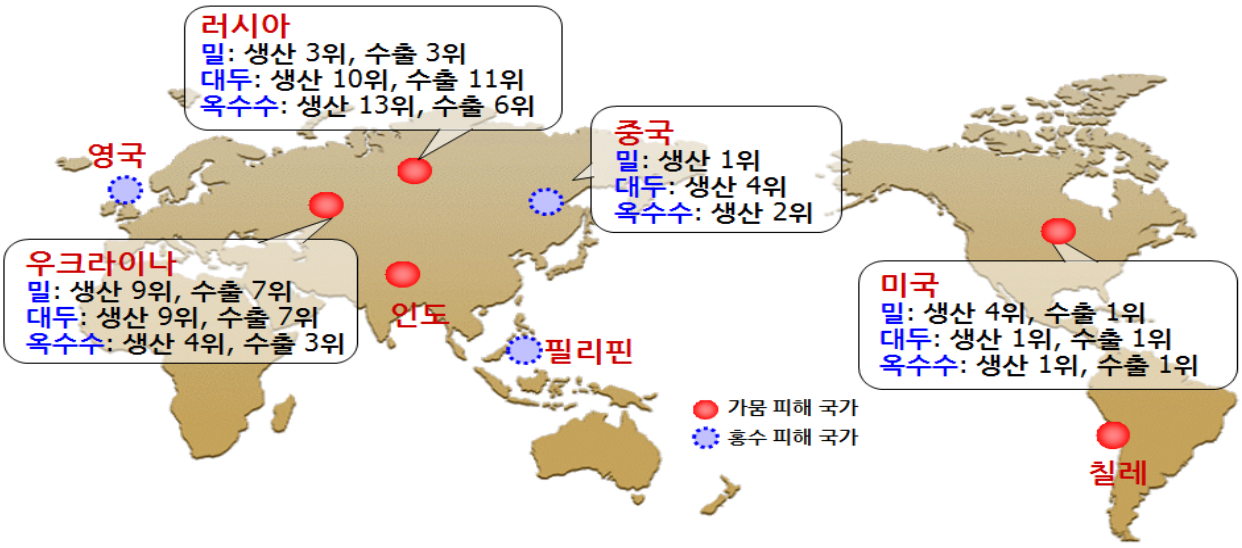
- 2012년 전 세계 밀 생산량은 전년 대비 4.7%, 옥수수 생산량은 3.2%, 쌀 생산량은 0.4%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12년 미국 생산량(전년 대비): 옥수수 12.8%, 대두 11.9% 감소[4]

  · 2012년 밀 생산량(전년 대비): 러시아(3위 생산국) 23.5%, 카자흐스탄(8위) 51.6%, 우크라이나(9위) 32.2% 감소

- 생산 감소로 인해 2012년 미국의 대두 수출량은 전년 대비 17.8%, 옥수수 수출량은 16.1% 감소할 가능성

2012년 세계 기상이변 현황



주: 곡물 생산 및 수출 순위는 2011년 기준
자료: USDA PSD Online

□ 기상이변으로 인한 공급불안이 예상되는 가운데, 투기적 자금이 곡물 시장에 유입[5]되면서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

[2] 2012/13년 곡물연도(2012년에 생산한 곡물이 2013년 수확 전까지 소비와 유통)
[3] USDA (2012.8.10.).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09.
[4] 2012년 미국의 전년 대비 옥수수 생산 감소량(4,013만톤)은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의 4.7%, 대두 생산 감소량(991만톤)은 전 세계 생산량의 3.8% 수준
[5] 2012년 8월 21일 기준 비상업거래의 순매수 포지션은 5월말 대비 옥수수는 3배, 밀은 94배로 증가

- 옥수수와 대두 가격은 2008년과 2011년 곡물 가격 급등기를 상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6]

  · 2012년 5월말(단기 최저) → 8월말 가격 상승률: 옥수수 44%, 밀 38.2%, 대두[7] 31.1%

2007/08년 vs. 2010/11년 vs. 2012/13년

▷ **[2007/08년 위기]** 2000년대 중반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곡물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쌀 등 곡물재고율이 위험 수준 이하로 하락
- 이집트, 인도네시아, 아이티 등 60여개국에서 식량가격 급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

▷ **[2010/11년 위기]** 2010년 여름 엘니뇨로 인한 가뭄 피해가 심각해지자 러시아가 곡물 수출을 금지
- 러시아에 대한 밀 수입의존도가 높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1] 국가들의 사회적 불안이 심화

▷ **[2012년 현재]** 미국 중서부 가뭄으로 인해 옥수수 생산감소 우려 고조
- 전 세계 1위 곡물 생산국인 미국에서 피해가 발생한 데다가 최근 곡물가격 간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사태가 심각
- 2012년 현재 세계경제가 과거 곡물가격 파동 때와는 달리 하강기라는 점도 위기고조 요인

구분	2007/2008년 위기	2010/11년 위기	2012/13년
주원인	수요 증가	러시아 곡물 수출 금지	미국 중서부 가뭄
대표적 피해 국가	호주(가뭄/고온)	러시아(가뭄/고온)	미국(가뭄/고온)
주요 불안품목	쌀, 밀	밀	옥수수
곡물재고율[2]	17.4%	20.7%	18.8%
정치적 파급	이집트 등 약60여개국에서 시위 발생	MENA 사태로 연결	인도네시아,이란 등 사회 불안 조짐

주: 1) 종교적, 지리적 공통점 때문에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로 통칭
2) 곡물재고율은 곡물재고량/연간소비량으로, 20% 이하면 위험 수준인데 세계농업기구(FAO)는 최소 17% 이상을 권고

[6] 최고 가격(달성일): 옥수수 8.39달러/부셸(8월 21일), 대두 17.64달러/부셸(8월 30일)

[7] 대두(콩)는 곡물(Grain)이 아닌 유지류(Oilseed)지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밀(소맥), 옥수수와 함께 거래되는 대표적인 농산물이고, 기름(대두유)을 짜낸 후 남은 대두박이 사료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통상 곡물로 취급

애그플레이션이 확산되면 세계경제 부진이 장기화

□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사료, 육류, 식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애그플레이션(Agflation: Agriculture+Inflation)을 유발

- 애그플레이션은 상대적으로 식품소비 비중이 높은 저개발국과 저소득층에 더 큰 영향

"식량가격이 30% 상승하면 고소득 국가의 생활수준은 3% 하락하지만, 저소득 국가의 생활수준은 20% 하락"

(게리 베커 시카고大 교수, 노벨상 수상자)[8]

□ 곡물가격 상승은 2012년 하반기와 2013년 상반기에 애그플레이션과 정정불안 등의 경로를 통해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

- 애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불안해지면 신흥국의 경기부양 여력이 약화되어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소지

- 국제 곡물가격 상승 문제가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2011년 초의 'MENA 사태(아랍의 봄)'와 같은 정정불안을 유발할 가능성 증대[9]

  · 2012년 7월 이란에서는 사료가격 상승으로 닭고기 가격이 급등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10]

국제사회의 대응과 한계

▷ G20은 국제 곡물가격이 식량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빠르면 2012년 9월말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
- 2011년 G20는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을 구축하고 비상상황 시 신속대응포럼(RRF)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
- 곡물수출 제한을 금지하고 투기적 거래를 제한하는 방법을 논의할 전망

▷ 그러나 G20에는 곡물 수출국과 수입국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이해 관계가 상충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8] Cheap no more. (2007.12.6.). *Economist*.
[9] Drought Threatens world food price rises. (2012.8.8.). *Euronews.com*.
[10] Iran's Big Crisis: The price of Chicken. (2012.8.8.). *Bloomberg*.

Ⅱ. 국제 곡물가격 급등의 영향

곡물가격 급등은 세계경제에 새로운 불안요인

□ 곡물가격 상승은 3가지 경로를 통해 세계경제에 파급

[신흥국] 식품가격 상승에 민감한 신흥국에서 애그플레이션이 발생

[중국] 사료와 돼지고기 가격에 민감한 중국은 피그플레이션이 발생

[중동] 식량 수입의존도가 높은 중동경제에 정정불안을 가중시켜 유가가 상승

□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신흥국 인플레이션과 중동지역 정정불안으로 인한 유가상승을 통해 세계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

- 중국 등 신흥국에서는 식량가격 상승이 사료 → 축산 → 식품 → 물가 전반으로 파급되어 인플레이션을 유발

- 중국의 피그플레이션發 물가상승이 전 세계로 전이되는 '차이나플레이션(Chinaflation)' 발생 시 세계경제에 부담

  · 중동 불안으로 인한 유가상승은 공산품 전반의 제조비용을 상승

곡물가격 급등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신흥국: 애그플레이션과 식량난의 이중고

곡물가격 급등 → 애그플레이션 확대 → 식량난 가중

□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신흥국 통화가치가 급락한 상태에서 식량가격 급등은 수입물가를 더욱 올려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자극

-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 소비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민감

  · 소비 중 식품지출 비중: 인도 26.3% > OECD 13.5%

국제 식량가격과 신흥국 물가

▷ 글로벌 곡물가격 상승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데, 특히 신흥국이 상대적으로 더 민감

- 글로벌 식량가격 지수와 브릭스 물가지수*) 간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
  · 상관계수: 러시아 0.95, 중국 0.69 〉 OECD 0.27
- 특히, 원유 등 공업용 원료가 동반 상승할 경우 민감도는 더욱 증폭

*) 각국의 물가지수는 2011년 1월~2012년 6월간 전년동월 대비 상승률을 사용

- 특히, 2012년 현재와 같이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통화가치가 하락한 상태에서는 수입물가 상승 속도가 평상시에 비해 빠름[11]

  · 곡물가격 급등이 가시화되기 이전인 2012년 상반기에 이미 브라질 헤알, 인도 루피 등 주요 신흥국 통화가 전년 대비 약 20% 평가절하[12]

□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애그플레이션과 식량난의 이중고는 신흥국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을 확대시켜 성장동력이 감소할 우려

[11] 환율 변동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압력은 각국의 GDP 대비 수입 비중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

[12] 2012년 신흥국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럽 재정위기가 재발하며 통화가치의 누적 하락폭이 더욱 확대

주요 신흥국이 애그플레이션과 식량난의 이중고에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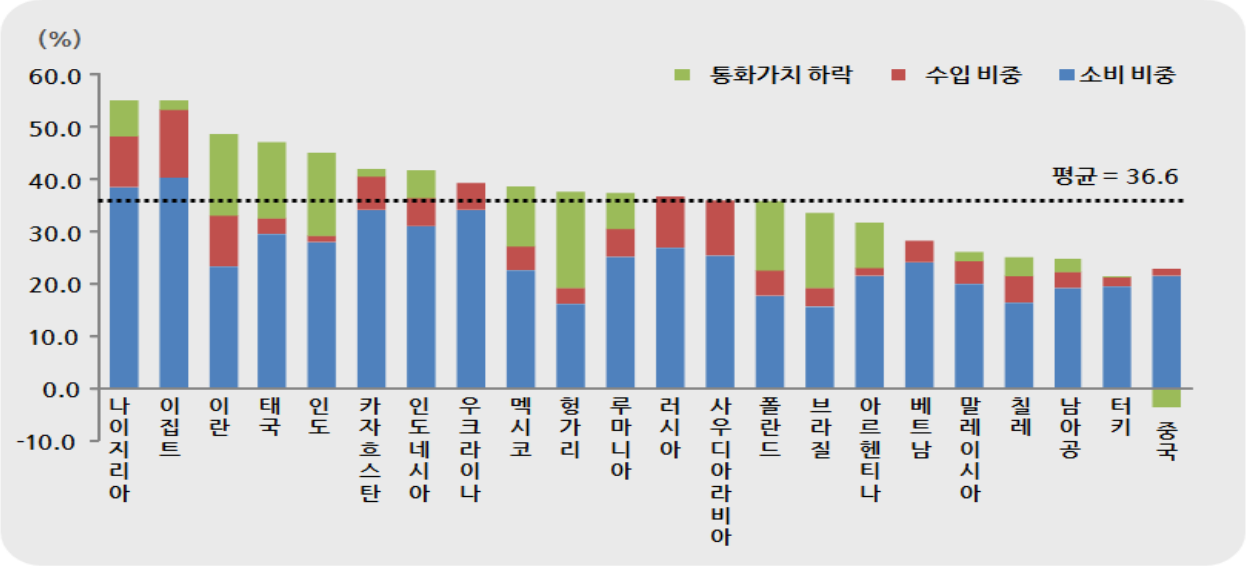
□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애그플레이션 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들이 물가상승 압력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

- 통화가치 하락폭, 소비 중 식품 비중[13], 전체 수입 중 식품 수입 비중[14]이 클수록 인플레이션 충격에 더 크게 노출

  · 소비 중 식품 비중(2011년): 이집트 39.7%, 나이지리아 38.0%

  · 식품 수입 비중: 이집트 15.3% (2011년), 이란 9.8% (2010년)

식량가격 상승에 따른 충격



주: 충격 = 상반기 환율 상승률 + 식품의 소비지출 비중 + 전체 수입 중 식품 비중
자료: Euromonitor; UN comtrade

□ 일부 신흥국은 재정적인 여유가 부족하고 물가 수준도 높아 식량난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진 상태

- 식량난으로 저소득층의 고충이 확대되고 물가상승으로 가계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15]

[13] 2009~2012년간 전체 소비지출 중 평균 식품지출 비중(Euromonitor)
[14] SITC 코드 01~06, 09, 111 기준(UN Comtrade)
[15] 정치 불안정성이 높은 신흥국 정부는 물가불안으로 저소득층의 불만이 고조되는 것을 매우 우려

- 인도, 이집트 등은 재정건전성이 취약하고 이란, 이라크는 최근 물가가 급등해 식량난에 대한 대처 능력이 낮게 나타남[16]

  · 재정건전성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17]으로, 물가변동[18]은 평균 수준과의 격차로 평가

식량난 대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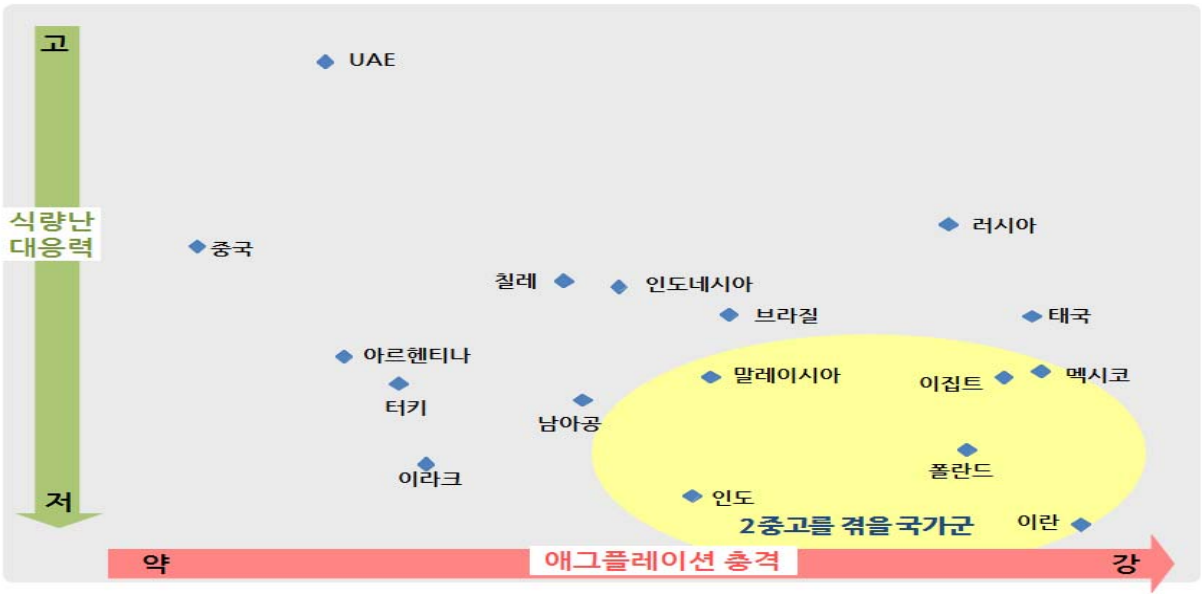
구분	인도	이라크	폴란드	이란	이집트
재정적자(%)	-9.0	-5.9	-5.9	0.7	-8.6
물가변동(%p)	-0.2	2.1	0.8	7.4	-2.9

주: 재정정자가 음(-)으로 클수록, 물가변동이 양(+)으로 클수록 대응력이 떨어짐
자료: IMF; Global Insight

□ 애그플레이션과 식량난에 대한 충격 및 대응력을 종합한 결과 인도, 이집트, 이란 등 주요 신흥국이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

- 인도는 통화가치 하락과 재정취약성으로 성장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집트와 이란은 정정불안에 애그플레이션의 충격까지 가중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충격과 대응력



주: 하단에 위치할수록 식량난이 가중되고 우측에 위치할수록 애그플레이션의 충격이 크다는 것을 의미

[16] 물가의 절대 수준이 높더라도 변동성이 낮을 경우 위험은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 있음
[17] 2009~2012년간(추정) GDP 대비 재정적자의 평균
[18] 2012년 7월 물가상승률에서 2011년 6월~2012년 6월 평균 물가상승률을 뺀 값

2. 중국: 곡물가격 상승이 '피그플레이션'으로 전이

곡물가격 상승 → 사료가격 상승 → 피그플레이션(Pigflation)

□ 중국은 세계 1위의 대두, 밀, 쌀 소비국이자 세계 2위의 옥수수 소비국으로, 소비 증가에 따라 곡물 수입이 크게 증가

- 세계 대두 수입량의 63.8%를 차지하는 등 세계 1위의 곡물 수입국

- 옥수수의 경우 2009년 純수입국으로 전환하여 옥수수 시장에 큰 영향

  ·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 130만톤(2009년) → 500만톤(2011년)

□ 중국은 주로 사료 목적으로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어서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면 돼지 등 육류가격 파동으로 직결

- 중국경제가 성장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육류 소비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사료 소비도 확대

  · 중국의 1인당 육류 소비량: 37.6kg(2000년) → 45.8kg(2010년)

  · 중국의 사료 소비량: 1.7억톤(2007년) → 2.6억톤(2011년)

- 2010년 중국은 전체 옥수수 소비의 61.4%를 사료용으로 사용

  · 옥수수 외에도 사료용 밀과 대두박 가격도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중국의 사료가격 상승압력이 가중

중국의 사료 소비 추이

(단위: 백만톤)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곡물 (옥수수 등)	108.9	114.4	120.4	130.2	144.5
유지박 (대두박 등)	44.3	46.6	53.6	59.7	63.6
기타 단백질 사료	12.6	13.0	16.0	16.3	17.5
총 사료 소비량	165.8	174.0	190.1	206.2	225.6

주: 2011년은 추정치
자료: IGC (2012. 1.). Market Focus, GMR 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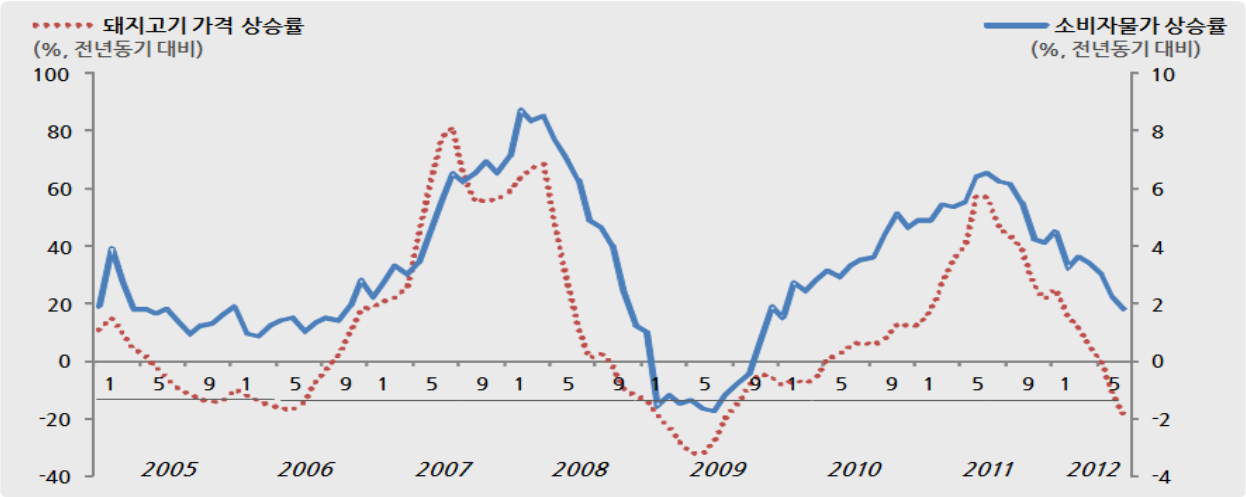
□ 사료가격 상승은 중국 물가의 핵심인 돼지고기 가격을 인상시키는 '피그플레이션(Pigflation)'을 유발할 전망

- 돼지고기 가격이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

- 중국의 물가불안은 그간 주로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기인

  · 2011년 5월 중국의 소비자물가가 5.5% 상승하는데 돼지고기 가격 상승(40.4%)이 20%를 기여하여 피그플레이션 발생

중국 돼지고기 가격 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CEIC

중국의 피그플레이션 전망

▷ 2012년 곡물가격 상승으로 예상되는 피그플레이션은 중국의 소비자물가를 추가적으로 1.5%p 상승시킬 전망

- 곡물가격이 1% 상승하면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 상승률은 1.0064%p 상승
  · 중국 돼지고기 가격 상승률 = f(곡물가격 상승률)의 추정식을 20007년 1월~2012년 7월의 월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
- 2012년 시작된 곡물가격이 50% 상승하면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은 50.32% 상승, 소비자물가 가중치(3%)를 고려하면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추가적으로 1.5%p 올라갈 전망
  · 계산식=곡물가격 상승률×돼지고기 상승률 추정계수×소비자물가 가중치
- 피그플레이션의 영향만 추정한 것이며, 애그플레이션 등의 영향은 별도

3. 중동: 정정불안으로 유가상승

MENA(중동·북아프리카) 사태 이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내연

□ 2010년 식량위기로 인해 MENA 사태가 촉발된 이후 시리아, 이집트, 리비아 등 중동 지역에서 정정불안이 지속

- 2010년 12월 튀지니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기폭제로, 2011년 들어서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등 MENA 국가에 민주화 시위 발생

  · 사태 前 세계 19위 산유국인 리비아의 석유 생산이 중단되는 등 중동 불안으로 인해 2011년 2월~2012년 4월의 월평균 두바이유 가격이 100달러를 상회

- 과도정부를 지나 민주적 절차에 의한 정부 수립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新정부의 장악력이 부족하여 정정이 계속 불안

MENA 사태 이후 중동의 정치상황

▷ 시리아는 정부군과 시민군 간의 유혈충돌이 지속
▷ 이집트는 역사상 첫 민선 대통령으로 무함마드 무르시가 취임했으나, 무르시 대통령은 무슬림형제단 소속으로 이슬람 강경파
▷ 리비아는 제헌의회 선거에서 마흐무드 지브릴 전임 총리가 이끄는 국민연합(NFA)이 승리했으나, 정치적 혼란이 지속

□ 2012년에는 이란의 핵개발에 대응한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로 인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확대

- 2012년 미국이 이란 중앙은행의 금융거래를 제재하는 국방수권법을 시행하고, 유럽은 금융제재와 함께 이란産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

- 2012년 현재 이란의 물가는 경제제재로 인해 이미 높은 상황으로, 곡물가격이 올라가면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커질 위험성

중동의 높은 식량 수입의존도 →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 유가상승

□ MENA 국가들은 주요 곡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

- 산업구조가 석유 생산·수출 중심으로, 척박한 토지와 고온 등으로 인해 농업 생산환경 열악

- 따라서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집트 등 전 세계 곡물 수입국 중 수입량 순위가 높은 국가가 다수 포진

  · 리비아의 경우 밀, 옥수수, 쌀의 소비 중 수입 비중이 모두 90%를 넘는 등 중동 국가들의 곡물 수입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준[19)]

  · 이집트는 세계 1위의 밀 수입국이자 5위 옥수수 수입국이며, 이란은 세계 2위 쌀 수입국이자 9위 옥수수 수입국

중동 주요국의 곡물수입 현황

(단위: 천톤, %)

구분	밀		옥수수		쌀	
	수입량 (순위)	수입/소비 비중	수입량 (순위)	수입/소비 비중	수입량 (순위)	수입/소비 비중
이집트	11,600 (1위)	61.4	5,500 (5위)	50.0	800 (13위)	19.7
알제리	6,250 (6위)	69.8	2,900 (11위)	100.0	110 (63위)	100.0
이라크	3,700 (12위)	59.0	150 (44위)	37.5	1,200 (7위)	91.3
사우디 아라비아	2,800 (16위)	70.9	2,000 (13위)	90.9	1,150 (8위)	100.0
리비아	1,525 (29위)	93.8	500 (32위)	95.2	220 (40위)	100.0
이란	800 (42위)	5.2	3,600 (9위)	61.5	1,900 (2위)	55.9

주: 괄호 안 순위는 2011/12년 기준 품목별 전 세계 국가 중 순위
자료: USDA PSD Online <www.fas.usda.gov/psdonline>

□ 대외 식량의존도가 높고 소비지출 중 식품 비중도 크기 때문에 국제 곡물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매우 커지는 실정

19)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UAE, 리비아, 쿠웨이트 등은 쌀 소비를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

- 2011년 총지출 중 식품 비중을 보면, 이집트 39.7%, 사우디아라비아 25.1%, 이란 22.2% 등으로 식품이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

- 2010년 여름에 시행된 러시아의 곡물수출 금지조치로 인해 2011년 초 MENA 국가들의 식량가격이 급등하자 민주화 시위가 촉발

□ 곡물가격이 지속 상승한다면 주요 수입국인 중동의 정정불안이 가중되어 석유 공급이 불안해지고 유가가 상승할 전망

- 중동 불안이 본격화된다면 국제유가는 이란사태 등으로 상승했던 배럴당 120달러 수준 이상으로 급등할 가능성

  · 두바이유 가격 고점(달러/배럴): MENA 사태 119.23 ('11.4.28.)
  이란 사태 124.22 ('12.3.14.)

- 유가상승은 선진국경제에 식품가격 상승보다 더 직·간접적인 큰 부담으로 작용

  · 2011년 1/4분기에 MENA 사태로 인한 유가상승 등으로 미국의 경제성장률(전기 대비 연율)이 0.1%로 크게 하락

중동의 정정불안과 국제유가

자료: KoreaPDS

4. 세계경제: 선진국보다 신흥국에 더 큰 영향

신흥국은 애그플레이션 확산, 선진국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

□ **[신흥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경기둔화 속에서도 마땅한 경기부양책을 내놓기 어려워 경기 둔화세가 지속될 우려

-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경기둔화가 가시화되자 주요 신흥국들은 금리인하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동원해 대응

  · 2012년 들어서 브라질은 총 6회에 걸쳐 금리를 4.0%p 인하했으며, 인도는 3년 만에(4월), 중국은 3년 반 만에(6월) 금리를 인하

주요 신흥국의 금리인하 현황 (2012년 1~8월)

구분	중국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횟수	2	6	1	1	5
변동폭(%p)	0.56	4.00	0.50	0.25	5.00

자료: Bloomberg

- 그러나 2012년 하반기 들어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면서 신흥국들은 정책적 딜레마에 봉착

  ·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지는 못하더라도 2012년 상반기와 같은 적극적인 인하는 어려울 것임

□ **[선진국]**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애그플레이션은 선진국 물가에 제한적으로 영향

- 선진국은 신흥국과 달리 식품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애그플레이션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수요측 물가하락 요인이 곡물과 에너지 부문 가격상승과 같은 공급측 물가상승 요인의 영향보다 커서 전반적인 선진국의 물가는 하락압력이 지속될 전망

Ⅲ. 시사점

한국경제: 물가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나 수출부진 지속 우려

□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지만, 생활물가가 상승하는 등 물가 불안심리를 자극할 우려

-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물가의 예상되는 최대 상승폭이 0.4%p로 현 물가수준을 감안할 때 물가안정목표 범위(2~4%)를 넘어설 정도의 충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 한국 물가에 미치는 영향

▷ 수입 곡물가격은 국내 식품물가에 4~7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되어 2012년 말부터 애그플레이션이 본격화

- 예상되는 가격 상승률(2012년 2/4분기 → 2013년 1/4분기): 밀가루 30.8%, 전분 16.3%, 유지류 11.2%, 사료 10.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국제 곡물가격 급등은 2013년 초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0.2~0.4%p 높일 것으로 분석 (골드만삭스)

(자료: 한석호 외 (2012). "국제곡물".『농업관측』, 9월호.; 국제금융센터 (2012.7.30.). "대외수요 약세 불구, 금년 GDP대비 경상흑자 비율 전년대비 상승할 전망".)

□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해 신흥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경우, 한국경제의 수출환경이 악화될 전망

-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는 인도, 이란, 이집트 등 신흥국경제의 부진이 장기화될 우려

- 또한 피그플레이션 등으로 중국경제의 둔화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물가변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 **[정부]**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식량공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을 시행

- 수급안정 등 미시적 차원의 대책과 함께 곡물가격 상승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

  · 상대적으로 엥겔계수가 높아 애그플레이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저소득층에 대해 우선 지원

- 정부는 주요 곡물의 수입관세를 인하하고 비축량을 확대하는 한편, 사료업체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20]

  · 국내 유휴지를 활용해 경작지를 확대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밀과 유기농 콩 등의 식량 생산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

  · 향후 국내외 기상이변 발생빈도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

□ **[기업]** 시나리오 경영 등 위기대응 체계를 갖추고 전략 우선순위를 탄력적으로 결정

- 한국의 주요 수출국 경제상황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

-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상대적으로 애그플레이션 충격이 작은 틈새시장을 개척하여 대체시장을 확보

농업부문의 기상이변 대응체제 강화

▷ 기상이변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농업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노력을 강화

- 가뭄, 고온, 저온에 내성 있는 종자개발, 기상이변에 대비한 농업 인프라 개선과 같은 적응대책을 추진
- 기상장비, 예측, 정보분석, 컨설팅 등 기상산업의 본격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기상정보를 농업에 활용하여 국내외 식량작황과 생산전망에 대한 분석의 정확도를 향상

[20] 옥수수, 밀의 수입 할당관세를 면제하고 사료업체의 사료원료 구매대금 지원을 2012년 600억원에서 2013년 950억원으로 확대

식량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

□ 세계적인 농산업 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반복되는 식량위기를 새로운 가치 창출과 신사업의 기회로 삼는 자세가 중요

- 농업 생산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종자산업 등 농산업 기업이 불황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향유하는 추세

  · 몬산토, 듀폰, 바이엘은 과감한 M&A를 통해 전통적 화학기업에서 농산업 분야의 대표기업으로 변신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 중

□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정보통신, 전자제어 기술을 지렛대로 삼아 농산업에 진출하는 전략도 검토

- 이스라엘은 농작물 생육환경을 정밀 제어하는 기술을 육성하여 물 부족 국가라는 약점을 극복[21)]

클라우드 서비스로 농업혁신을 추구하는 후지쓰

▷ 후지쓰(日)는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식품·농업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키사이(秋彩)'를 2012년 10월부터 개시한다고 발표

- 농지에 날씨와 토양환경 등을 측정하는 센서를 설치하고 여기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파종, 농약살포, 수확 시점을 모바일로 제공
- 일본 농업을 정보통신기술로 혁신시킬 새로운 과학적 영농 서비스로 평가

(자료: Alabaster, J. (2012. 7. 18.). Fujitsu Launches 'Agricultural Cloud' to Analyze Data from Field Sensors. CIO.com.)

□ 식량위기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업 투자를 늘리고 농산업을 육성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

- 한국정부가 추진 중인 '골든 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와 같은 사업을 민관이 협력 발전시켜 첨단 종자산업의 기틀을 다질 필요 CEO

21) 네타핌(이스라엘)은 물을 60% 절약하고도 생산성을 2배로 늘리는 세류관개시스템 기술을 보유

【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1일 지표 >

		8. 28	8. 29	8. 30	8. 31	9. 3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1,136.70	1,133.40	1,134.00	1,134.70	1,131.00
	엔/달러(뉴욕시장)	78.745	78.610	78.720	78.575	78.310
	달러/유로(뉴욕시장)	1.25040	1.25640	1.25330	1.25110	1.25730
금리	회사채(3년AA-, %)	3.33	3.30	3.29	3.27	3.25
	국고채(3년, %)	2.81	2.79	2.78	2.76	2.75
	CD (91일, %)	3.18	3.18	3.17	3.16	3.16
	LIBOR (3개월, %)	0.42275	0.42175	0.42075	0.41825	0.41435
국제 원자재 가격	두바이(S, $/배럴)	110.02	109.49	110.24	110.33	111.79
	WTI(S, $/배럴)	96.37	95.47	94.69	96.44	..
	CRB 현물가격지수	490.9	492.77	..	490.7	..
주가지수(KOSPI, 종가)		1,916.33	1,928.54	1,906.38	1,905.12	1,912.71
한국 5년만기 CDS 프리미엄		104	104	106	104	104

< 월별 지표 >

	2010년	2011년	2012.4월	2012.5월	2012.6월	2012.7월	2012.8월
제조업생산 증가율[1]	16.8	7.0	0.1	2.9	1.5	0.3	..
평균가동률	80.9	79.9	79.2	79.3	78.1	77.2	..
서비스업생산 증가율	3.9	3.3	1.0	2.4	1.4	1.5	..
실업률	3.7	3.4	3.5	3.1	3.2	3.1	..
실업자(만명)	92.0	85.5	89.5	80.7	82.2	79.5	..
총취업자 수(만명)	2,382.9	2,424.4	2,475.8	2,513.3	2,511.7	2,510.6	..
소비자물가 상승률	3.0	4.0	2.5	2.5	2.2	1.5	1.2
생산자물가 상승률	3.8	6.1	2.4	1.9	0.8	-0.1	..
생활물가 상승률	3.4	4.4	2.0	2.2	1.8	0.8	0.6
수출(억달러, FOB)[2]	4,663.8	5,552.1	461.2	469.5	472.1	446.4	..
(증감률)	(28.3)	(19.0)	(-5.0)	(-0.8)	(1.0)	(-8.8)	..
수입(억달러, CIF)	4,252.1	5,244.1	440.2	446.4	422.5	418.8	..
(증감률)	(31.6)	(23.3)	(-0.4)	(-1.4)	(-5.7)	(-5.4)	..
외환보유액(억달러)	2,915.7	3,064.0	3,168.4	3,108.7	3,123.8	3,143.5	..

1) 통계청 (2012. 8. 31.) "2012년 7월 산업활동동향"에 의거하여 작성
2) 관세청 (2012. 8. 14.) "2012년 7월 수출입 동향(확정치)"에 의거하여 작성

< 분기 지표 >

	2010년	2011년	2011년 2분기	2011년 3분기	2011년 4분기	2012년 1분기	2012년 2분기
GDP 성장률[1]	6.3	3.6	3.5	3.6	3.3	2.8	2.4
민간소비	4.4	2.3	3.0	2.1	1.1	1.6	1.2
설비투자	25.7	3.7	7.7	1.2	-3.3	8.6	-2.9
건설투자	-3.7	-5.0	-4.2	-4.0	-2.1	1.5	-1.4
SERI 소비자태도지수 (연간은 연말 기준)	51.8	45.4	47.2	47.5	45.4	44.2	46.6
SERI 경제행복도지수[2] (연간은 연말 기준)	0.658	..	0.689	0.693	..	..	..
개인금융자산(조원)[3]	2,187.9	2,303.4	2,275.7	2,234.4	2,303.4	2,365.3	..
개인금융부채(조원)	1,016.6	1,103.5	1,055.0	1,074.0	1,103.5	1,106.9	..
재정수지(조원)	16.7	18.6	-2.3	16.8	18.6	-11.3	..
경상수지(억달러)[4]	293.9	265.1	54.9	69.0	115.1	25.6	111.4
총대외지불부담(억달러)[5]	3,594	3,984	3,993	3,956	3,984	4,126	4,186

1)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 2010년 4/4분기부터 소득분배 부문 하위지수 산정법 개정으로 과거 자료와 상이
3) 개인금융자산 및 부채는 자금순환계정 기준
4) IMF 국제수지통계매뉴얼(BPM5) 기준
5)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

< 주요국 통계 >

(전년동기 대비, %)

		2010년	2011년	2011년 2분기	2011년 3분기	2011년 4분기	2012년 1분기	2012년 2분기
미국	GDP 성장률[1]	3.0	1.7	2.5	1.3	4.1	2.0	1.5
	실업률[2]	9.6	9.0	9.1	9.0	8.5	8.2	8.2
	소비자물가[2]	1.6	3.2	3.6	3.9	3.0	2.7	1.7
일본	GDP 성장률[1]	4.4	-0.7	-1.9	7.4	0.3	5.5	1.4
	실업률[2]	5.1	4.6	4.7	4.2	4.5	4.5	4.3
	소비자물가[2]	-0.7	-0.3	-0.4	0.0	-0.2	0.5	-0.2
유로 지역	GDP 성장률[1]	1.9	1.5	0.2	0.1	-0.3	0.0	-0.2
	실업률[2]	10.1	10.2	10.0	10.4	10.7	11.0	11.2
	소비자물가[2]	1.6	2.7	2.7	3.0	2.7	2.7	2.4
중국	GDP 성장률[1]	10.4	9.2	9.5	9.1	8.9	8.1	7.6
	실업률[2]	4.1	4.1	4.1	4.1	4.1	4.1	4.1
	소비자물가[2]	3.3	5.4	6.4	6.1	4.1	3.6	2.2

1) 미국, 일본, 유로지역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중국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의 경우 분기 말 기준